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 E-7 도입 요구

E-3 기체 노후로 운용에 어려움 겪고 있어 빠른 교체 요청



영국이 E-3D 교체기로 도입할 E-7 웨지테일. 출처 보잉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노후한 E-3 조기경보통제기를 E-7 웨지테일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E-3는 개량을 통해 2030년까지 운용될 예정이지만, 노후화로 비행시키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다. 미 공군은 5세대 및 6세대 전투기와 혼합하여 운용할 새로운 4.5/5세대 전투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독일, 스페인과 함께 FCAS를 추진하는 프랑스 닷소는 작업 분담과 자적재산권 문제 등으로 인해 독자 개발을 암시하는 플랜 B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한 달간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 및 군사 소식을 소개한다.

최현호 군사커뮤니티 밀리돔 운영자 / 군사칼럼니스트

미 공군, 조기경보통제기 신형 도입 촉구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미 공군협회 가상 심포지엄에서 E-3 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E-7 웨지테일 조기경보 및 통제기(AEW&C)로 대체하고, 차세대 전투기를 빨리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사령관은 현대화된 E-7은 전투영역 인식에 도움이 될 것이며, 태평양공군은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첨단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령관은 E-3의 신뢰성 저하가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형 보잉 707을 기반으로 하는 E-3 AWACS는 최근 개량을 통해 2030년대까

지 비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령 문제로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계감사국(GAO)은 2020년 보고서에서 필요한 부품 공급 및 노후한 항공기 유지보수와 관련된 지속적인 문제로 인해, 공군의 E-3 전력은 2011년부터 2019년 회계연도까지 가용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령관이 E-3의 대체기로 언급한 E-7 웨지테일은 보잉이 호주 공군을 위해 737NG 단일통로 여객기를 기반으로 개발한 조기경보 및 통제기다. 호주 공군이 6대를 운용하고 있고, 터키 공군은 E-7T 피스아이글이라는 이름

뉴스 둘보기

미 공군 참모총장은 태평양공군 사령관의 요구에 대해 E-3 대체를 위해 더 많은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참모총장은 공군협회 항공우주전 심포지엄에서 지금 당장 E-7 웨지테일이나 교체 일정에 집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검토 가능한 옵션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E-3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살펴보면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 옵션이 무엇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E-7 웨지테일은 옵션 중 하나이며, 유일한 옵션은 아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으로 4대를, 우리 공군이 피스아이라는 이름으로 4대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 공군도 2019년 E-3D 교체기로 5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차세대 전투기에 대해서는 공군이 추진하는 차세대 제공우세(NGAD) 플랫폼과 첨단 무기를 지지하며, 이들은 적이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령관은 제공 우위가 없다면 하려는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제공 우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태평양공군은 지대공 미사일과 적의 공대공 능력을 처리하는 두 가지가 요구되는, 적이 설정한 접근거부 지역거부(A2/AD) 속에서 전투를 하게 된다.

미 공군, 4.5/5세대 전투기 연구 시작

미 공군 참모총장이 2023 회계연도 예산 요청에 활용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친 전술항공요구조건(TacAir)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참모총장은 국방장관실로부터 연구에 대한 신뢰성과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국방부 비용평가 및 프로그램 평가국이 참여하기를 원했다.

참모총장은 미 공군은 F-22와 F-35 같은 5세대 기능과 차세대 대공우세 전투기(NGAD)와 같은 6세대 기능이 필요하지만, 저가 전투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 공군 획득책임자 월 로퍼가 더 많은 F-16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자신은 그 옵션을 버렸다고 했다.

참모총장은 1970년대에 설계된 F-16은 개방형 미션

시스템 기능이 부족하고, 작전용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드물었다면서, 새로운(clean sheet design) 설계의 4.5 또는 5세대 항공기에 더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TacAir 연구는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결정할 것이다. TacAir 연구는 오스틴 국방장관의 글로벌 태세 검토(Global Posture Review)와 동시에 진행될 것이며, 두 평가는 서로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글로벌 태세 검토는 부서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TacAir 평가의 방향

뉴스 둘보기

미 공군 참모총장의 새로운 4.5/5세대 전투기 언급은 F-35 전투기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한다. F-35에 대한 불만은 아담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회 등 미 의회 전반에도 퍼져있다. 아담 스미스 위원장은 참모총장의 발언 하루 뒤에 계획보다 낮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F-35에 많은 돈을 지출한다고 비판하고, F-35에 의존하지 않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F-35의 시간당 비행 비용은 3만6000달러이며, 수명주기 동안 1조7000만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적어도 하나의 할당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체 비율은 목표 임무 달성을 80%에 못 미치는 69%에 그쳤다.

을 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모총장은 TacAir 연구는 많은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모총장은 최적의 전력 혼합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하여 분명한 위험이 있으며, 자신의 임무는 그 위험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 공군 전투기의 평균 기령이 28년이며, 적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전력의 혼합 연구가 매우 중요하며, 평균 기령을 낮추고 현재와 미래에도 관련 성 있는 무언가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Y-20 공중급유기 생산 시작한 듯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중국이 Y-20 수송기를 기반으로 한 공중급유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2020년 12월 말, 플래닛랩(Planet Lab)이 미국의 디펜스뉴스에 제공한 중국 산시성 시안시의 옌량 비행장 사진에는



중국이 개발한 Y-20 전략수송기. 출처 중국 국방부

날개 바깥쪽에 달린 연료공급용 포드가 달린 것으로 보이는 Y-20 수송기 4대가 찍혔다. 기체가 촬영된 시안시 옌량 비행장은 Y-20을 개발한 시안항공기회사(XAC)의 생산 공장과 함께 여러 항공기술 회사들과 연구시설이 있는 곳이다.

디펜스뉴스는 이 기체들을 공중급유기인 Y-20U로 보았다. Y-20U는 주의 양쪽에 하나씩, 그리고 동체 후방에 하나로 총 세 개의 급유 지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Y-20U 공중급유기 시제기는 2018년에 첫 비행을 했으며, 4대의 Y-20U가 목격된 것은 비행 시험 프로그램이 완료되었거나 양산을 시작할 만큼 충분히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Y-20U가 전용 공중급유기인지 Y-20 수송기의 화물 수송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공위성 사진에 찍힌 네 대 중 세 대는 짙은 회색으로 도색되어 있었고, 나머지 한 대는 프라이머 코팅만 된 상태였다. 회색 항공기 중 하나는 시제품이고, 나머지 세 대가 생산 기체일 가능성이 크다. Y-20U 공중급유기가 양산되면 중국 공군과 해군 항공대의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공군은 H-6U, 해군 항공대는 H-6DU라는 공중급유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총 24대가 있다. 이 기체들은 소련이 1950년대에 개발한 Tu-16 폭격기를 기반으로 중국이 개발한 H-6 폭격기를 개조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한 IL-78MP 공중급유기 3대도 운용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 애로우-4 공동 개발 시작

이스라엘 국방부는 미국과 함께 차세대 요격체를 포함하는 애로우-4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애로우-4 시스템은 현재 이스라엘이 운용 중인 애로우-2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다. 이 사업은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기구(IMDO)와 미국 미사일방어국(MDA)이 함께 진

행한다. 이스라엘 IAI가 전체 시스템 개발 주계약자이며, 미국에서는 애로우-3 시스템 개발 파트너였던 보잉이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애로우-4 시스템은 중동 및 전 세계의 미래 전장에서 진화하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되었다고 밝혔다. 대기권과 외기권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로우-4 시스템에 대한 개념 작업은 이스라엘이 애로우-2 시스템을 대체할 미래 요격체를 찾고 있던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로우-4 시스템 개발 발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란에 대해 논의한 다음 날 나왔다. 이스라엘 미디어들은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이라크로 옮길 수 있다고 밝힌 뒤 며칠 만에 나온 이 발표를 이란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양해각서에 따라, 이스라엘은 다층 대공방어를 위해 연간 5억 달러를 미국에서 지원받고 있다. 지원의 대상에는 아이언돔, 다비스 슬링, 애로우-2와 3가 포함된다. 이스라엘은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탄도 미사일 공격에 위협을 느끼고 방어를 위해 애로우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다. 2000년 대기권 요격용 애로우-2 시스템의 첫 포대가 이스라엘 공군에 인도되었고, 2009년부터는 외기권 요격용 애로우-3 시스템이 개발을 시작했다. 애로우-3 시스템은 2017년 이스라엘 공군에 인도되었고, 시리아에서 발사된 지대공미사일이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지기 전에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나토, 중국이 유럽 내 수송에 미치는 영향력 파악 중

나토 관계자들이 유럽의 주요 수송로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유럽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미칠 영향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오는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철도를 이용하여 군사장비를 운반하고 있는 나토군. 출처 나토

년 외국의 소유와 영향력으로 인한 동맹의 중요 인프라와 기술의 취약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닷소 회장, FCAS 전투기 플랜 B 언급

프랑스 라팔, 독일 타이푼, 그리고 스페인 EF-18 호넷을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NGF)를 이끄는 프랑스 닷소 에비에이션 회장이 1B로 불리는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를 구현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NGF 프로그램은 유인항공기, 네트워크로 연결된 드론들과 함께 모든 요소를 결합하는 전투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구상하는 미래 전투항공시스템(FCAS) 노력의 일부다.

FCAS에 스페인이 참여하면서 닷소와 에어버스의 작업 점유율은 50 대 50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대표하는 에어버스가 66%를 가지는 것을 포함하여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닷소 회장은 작업을 공유하는 것이 더 복잡해졌지만, FCAS가 3개국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믿는다 말했다. 그러나 모든 책임 있는 경영자는 플랜 A를 작동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항상 플랜 B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닷소 회장이 언급한 플랜 B는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닷소는 항공기, 사프란은 전투기용 엔진, 탈레스는 전자기기, 그리고 MBDA는 미사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등 프랑스 산업계는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회장은 기술을 감추기 위한 블랙박스는 없을 것인지만,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 산업 노조가 설계 능력 보존을 위해 요구한 NGF 두 번째 실증기에 대해서는 계획에 들어있지도, 각국이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에 관계없이 프랑스가 개발하는 6세대 전투기는 항모와 호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FCAS 프로그램의 NGF 컴퓨터 그래픽. 출처 닷소 에비에이션